

혈액암 일종...3-4기라도 항암치료 반응 좋아 완치 가능



송 가 영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혈액내과 교수

림프종

50대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몇 개월째 목에 멍울이 만져져 걱정이 커졌다. 통증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점점 크기가 커지면서 불안감도 높아졌다. 단순한 염증일까, 아니면 암일까?

목·겨드랑이 등 림프절 모인 곳서
‘덩어리’ 잡히면 조직검사 해봐야
피로·발열·체중 감소 등 증상 동반
“건강한 습관·긍정적 마음 큰 힘”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질환 중 하나가 바로 ‘림프종’이다. 림프종은 혈액암의 일종으로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림프구에서 발생한다. 목·겨드랑이·사타구니처럼 림프절이 모여 있는 부위에 덩어리가 잡히는 경우가 많아 흔히 고형암으로 오해되지만, 사실은 ‘혈액암’으로 분류된다.

송가영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혈액내과 교수를 통해 림프종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본다.

◇림프절 점점 커지면 림프종의 의심

림프절은 우리 몸 곳곳에 분포하며 면역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감염이나 염증이 생기면 일시적으로 붓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라앉는다. 반대로 림프종은 시간이 갈수록 림프절이 점점 커지며 피로·발열·체중 감소·식은땀 같은 전신 증상도 동반할 수 있다.

림프종이 의심될 때는 영상검사만으로 확진할 수 없다. 반드시 조직검사가 필요하다. 특히 전체 림프절을 절제해 현미경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원칙이다. 최근에는 간편한 침생검도 이뤄지지만, 일부 경우에는 확진이 어려워 다시 검사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치료 핵심 ‘항암’...운동·식단 등 도움

많은 환자들이 “병기가 높으면 치료가 불가능한 게 아니냐”고 걱정하지만, 림프종은 다르다. 진행된 3-4기라 하더라도 항암치료 반응이 좋아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고형암이 수술을 중심으로 치료하는 것과 달리, 림프종은 아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항암치료가 치료의 핵심이다. 일부 저등급 림프종에서는 바로 치료하지 않고 일정 기간 추적관찰을 하기도 한다.

치료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생활 관리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운동하고, 신선한 재료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

별히 ‘암에 좋은 음식’이나 ‘나쁜 음식’은 없다. 다만 항암치료 중 면역력이 크게 떨어졌을 때는 덜 익힌 음식을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독감·코로나 예방접종 같은 사백신은 항암치료 일정에 맞춰 접종하는 것이 감염 예방에 유익하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주기적인 영상 검사로 재발 여부를 확인한다. 규칙적인 식사·운동·수면으로 일반적인 건강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림프종은 초기에는 환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치료 반응이 좋은 암 중 하나다. 진단을 받았더라도 너무 비관하기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

/정리=기수회 기자



광주기독병원엔 최근 ‘2025 다같이, 더가치 환자 안전’ 구연발표 및 포스터 전시회를 개최했다. <광주기독병원 제공>

광주기독병원 ‘의료 질 향상·환자 안전’ 성과발표회

광주기독병원은 최근 전 직원이 참여하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환자 안전(Quality&Patient Safety-QPS) 성과를 공유하는 ‘2025 다같이, 더가치 환자 안전’ 구연발표 및 포스터 전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18일 광주기독병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각 부서가 연중 추진한 다양한 개선 활동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병원은 부서별 QPS 결과를 모아 정리한 ‘QPS 활동 사례집’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총 19개의 주제별 실천사례가 실렸으며, 실제 진료현장에 즉시적

용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개선방안들이 제시됐다.

광주기독병원은 이번 활동을 통해 부서 간 협력과 소통이 강화되고, 병원 전반에 환자 안전 중심의 조직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욱 병원장은 “여러분이 이뤄낸 개선은 단순한 업무 효율을 넘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매우 의미있는 성과로 앞으로도 병원은 안전한 진료 환경과 표준화된 의료서비스, 지속가능한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수회 기자

진보공단 광주전라제주본부

‘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위해 오는 12월9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 대상은 근로자(법인 이사와 그 밖의 임원 포함)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다. 여기에는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장기요양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포함)가 해당된다.

신고 서류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이며 4대사회 보험 사이트에서 다룬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접수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기수회 기자

전남대병원, 대한응급의학회 추계학술대회서 ‘접경사’

전병조 교수 차기 이사장 선출

정경운 교수 우수구연상 수상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가 학회 이사장 선출과 우수구연상 수상이라는 겹경사를 맞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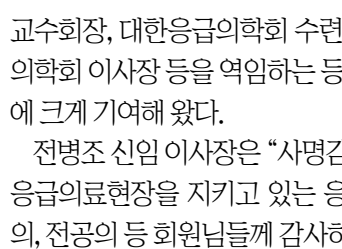
18일 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전병조 교수는 최근 대한응급의학회 대의원 회의에서 경선을 통해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된 후 지난달 30-31일 스위스그랜드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5년 대한응급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총회에서 2026년 1월부터 임기 2년의 제13대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으로 인준됐다.

대한응급의학회는 국내 응급의료 관련 정책 수립, 학술 연구, 전공의 교육, 수련 등을 주도하며 국가 응급의료시스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학술단체이다.

전 신임 이사장은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장,



전병조



정경운

교수회장, 대한응급의학회 수련이사, 삼남응급의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는 등 응급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전병조 신임 이사장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응급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 등 회원님들께 감사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지속 가능한 응급의료정책과 시스템을 개발하고 미래 지향적인 대한응급의학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정경운 응급의학과 교수는 대한응

급응급환자

실장, 권역

응급의료센

터장, 전남

대 교수평

의회 이사,

전 남 의 대

급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구연상을 수상하며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연구 역량을 과시했다.

정 교수가 수상한 연구는 ‘질식성 돼지 심장 지 모델에서 마그네슘의 척수강 내 투여가 신경학적 예후에 미치는 영향(Effects of intrathecal magnesium administration on neurologic outcomes in a porcine model of asphyxial cardiac arrest)’이다.

이 연구는 난치성 질환인 심정지 환자의 신경학적 예후를 개선하는 새로운 치료 접근법을 제시한 선도적 연구로 학계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 교수는 “학회에서 연구의 독창성과 중요성을 인정받게 돼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심정지 환자의 생존 및 예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생존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기수회 기자

전남대치과병원 ‘개원 17주년 기념식’ 개최

지난 17년 발자취·향후 비전 등 공유

황윤찬 병원장 “더 큰 미래로 도약”

전남대치과병원이 개원 17주년을 맞아 지난 17일 오전 11시 치과병원 5층 평강홀에서 기념식을 열고 지난 성과를 돌아보며 미래 발전 방향을 다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신 전남대학교병원장, 황윤찬 전남대학교치과병원장을 비롯한 치과병

원 및 본·분원 관계자 등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병원 연혁보고 ▲기념영상 상영 ▲개원기념 유공자 포상 등이 이어지며 치과병원의 17년 발자취와 향후 비전을 공유했다.

전남대치과병원은 용봉동 이전 개원 이후 지난 17년간 호남권 치과의료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최근에는 ▲장애인 환자 진료서비스 확대 ▲최신 의료장비 도입 ▲진료시스템 개선 등으로 진료 역량을 한층 강화하며 ‘누구에게나 안전한 치과진료’를 실현하는 공공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또 환자 중심의 병원 환경 조성을 위해 ▲주차유도관제시스템 구축 ▲1층 로비 환경 개선 등 고객만족도 향상 활동도 지속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의료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황윤찬 전남대치과병원장은 “17년간의 발전은 모든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며 “그러나 더 큰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독립법인화를 비롯한 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한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치과병원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수회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번호
220603-중-139779